

한국 영양교육 및 정책

A Review of Korean Nutrition Education and Policy

김 속 희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ook He, Kim

Dept. of Foods and Nutrition, Ewha Womans University

식량확보를 위한 노력

국민의 식생활은 그 나라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구조에 의한 식량의 공급으로 인해 크게 좌우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일국의 식량수요는 인구와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라는 두가지 요인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인구증가가 거의 세계 수위의 수준을 나타내어 인구 급성장을 초래하다가 6·25동란으로 잠시 멈춰섰으나, 그 후 baby boom으로 인해 인구성장율이 2.9%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3,000만 인구를 확보하게 되면서, 특히 1962년 5·16혁명 이후에는 국민의 식량확보가 정치적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국민소득 성장은 역시 잡곡으로부터 미곡으로의 대체, 축산물 및 과실소비의 증가 등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량확보는 주곡의 자급을 핵심으로 진행되어 왔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쌀은 우리 식생활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쌀증산을 위한 많은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1970년에서 오랫동안의 시험 연구결과인 다수확 품종 IR 677호를 개발하여 쌀증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양곡 수급에 있어서도 이중곡가제와 고미가 정책등을 실시하였다.

60년대 후기로부터 농업의 기술화, 수리사업 실시와 비료 및 농약살포는 또한 쌀의 양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은 쌀 증산뿐만 아니라 특수작물의 경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vinyl house의 출현은 식량생산에서 계절적 변동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6·25동란 이후에 미국의 PL480 잉여 농산물법에 의해서 구호양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었고 이는 학교급식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쌀을 다른 무엇보다도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쌀 소비량은 높고 기타 잡곡의 소비량은 낮아서 생산된 곡류의 균형된 소비를 피함으로써 절대량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려는 교육 계몽운동도 농수산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60년대 초기에 농수산부에서 내놓았던 슬로건은 혼식장려, 분식장려이었다. 혼식은 보리밥을 먹기를 장려하는 운동이었고 분식은 수입된 밀이나 밀가루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이었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의 도시락 검사, 시내 음식점에서는 무미일을 선정, TV나 신문을 통한 혼식장려 권장을 하였고, 한편으

Chemical fertilizer output and consumption

Year	Consumption	Import	Domestic production	Consumption per Hectare
	(1,000 metric tons of nutrient)			(kg.)
1945	2.34	n.a.	0.75	1.1
1949	200.30	n.a.	-	97.6
1950	15.82	n.a.	-	8.1
1955	183.54	183.40	0.44	92.0
1960	279.42	262.20+	6.15	138.0
1965	393.10	425.00	75.27	174.2
1970	562.90	6.70	589.84	243.0
1975	886.21	240.90	859.72	395.7

Source: Various issues of MAF, Yearbook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tatistics

농약소비 실적도		단위 (kg)
연 도	소 비	
1957	6,764,086	
1960	5,857,261	
1963	18,772,129	
1966	12,549,476	
1969	17,530,969	
1972	33,197,744	
1975	80,969,351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 연보.

로는 곡류의 영양가의 평가를 하였다.

쌀만 섭취할 때의 영양 불균형 강조, 보리나 밀의 단백질함량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쌀보다 영양이 더 좋은 곡류로서 강조하였으며 극단의 예로서는 "삼백색의 해" 라는 주제하에 흰밥, 소금, 설탕의 해가 일부인에 의해 강조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시도의 결과 1976년에는 쌀이 자급되었으나 고미가정책과 농업보호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3할의 농민을 위해서 더 이상 소비자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정

식량수입 현황					(단위: 천 M/T)
연 도	쌀	밀	옥수수	콩	기 타
1976	-	1,711	869 (666)	128 (100)	-
1977	-	1,924	1,672 (1,372)	194 (151)	480
1978	-	1,587	559 (213)	74 (0)	1,781
1979	502	1,652	3,178 (2,747)	410 (331)	17
1980	1,187	2,020	2,085 (1,721)	546 (395)	7
1981	1,827	1,849	2,359 (1,887)	445 (375)	139 (130)
1982	500	1,800	2,887 (2,391)	562 (429)	420 (413)
1983	-	1,972 (121)	4,249 (3,604)	731 (550)	402 (394)
1984	-	2,782 (926)	2,913 (2,208)	751 (576)	455 (439)
1985	-	2,609 (852)	2,991 (2,296)	739 (624)	468 (445)

주: ()안의 숫자는 사료용 양곡수입을 나타냄.

자료: 농수산부, [주요농정지표], 1986.

식량 전체의 자급도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	밀	옥수수	부류	서류	기타	주곡(쌀·보리)
19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00.0	102.1
19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96.4
1971	71.2	82.5	91.8	11.8	18.6	82.6	100.0	103.6	84.9
1972	70.8	91.6	93.2	7.3	13.8	85.1	100.0	100.0	92.1
1973	69.4	92.1	82.9	5.3	12.4	75.2	100.0	100.0	89.5
1974	70.3	90.8	78.4	4.9	10.3	84.5	100.0	100.0	87.3
19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00.0	93.9
1976	74.1	100.5	97.9	4.5	6.7	74.4	100.0	100.0	99.8
1977	65.1	103.4	53.4	2.3	6.2	67.5	100.0	100.0	91.8
1978	72.6	103.9	119.9	2.1	6.0	59.3	100.0	100.0	106.4
1979	59.8	85.7	117.3	2.4	3.4	43.4	99.8	89.3	90.7
19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7.3
1981	43.2	66.2	72.7	2.7	6.1	29.7	100.0	89.1	67.3
1982	53.0	93.7	85.9	3.4	4.9	32.4	100.0	22.5	91.8
1983	50.2	97.6	129.0	6.0	2.8	23.7	100.0	25.2	100.2
1984	48.7	97.5	103.9	0.6	3.1	23.5	100.0	10.1	101.2
1985	48.6	103.4	82.4	0.4	4.1	22.5	100.0	12.4	101.0

자료 : 농수산부, [주요농정지표], 1986

주요 양념류 농가판매 실질가격의 변동율(단위 : %)

연도	고추	마늘	양파
1972	35.3	12.6	-53.4
1973	-20.2	-26.8	53.2
1974	21.0	-36.8	-5.1
1975	4.8	64.3	21.7
1976	-26.4	163.0	21.7
1977	-24.6	-5.5	-36.1
1978	217.8	1.3	175.2
1979	14.9	-72.1	-68.1
1980	-29.7	-6.5	37.5
1981	-48.3	171.9	26.8
1982	0.0	2.3	-48.3
1983	-39.7	-31.2	-49.1

한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곡물의 간접소비
를 증가시켰고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농경지
이용율의 저하현상으로 인해 곡물 전체의 자급율
은 급속히 하락되었다. 60년대 초의 92%수준에서
77년에는 67%, 79년에는 59% 그리고 현재는 약
50%로 곡물의 자급도가 떨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신장에 따른 비전분질 식품의 섭취증가는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했
다. 모자라는 식품의 부족량을 메꾸어 보려는 노력
으로 농산물 도입이라는 시책에 따라 정부는 78년
에 다량의 고추를 수입하였고 이어서 양파,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였다. 대량으로 들
어온 육류를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등의 고소득
원에작물의 수입은 가축 방매의 사태와 마늘, 양
파값의 폭락을 초래하였으며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1인당 GNP가 500
불을 넘어선 1975년부터 국내 육류공급 능력을 초

부는 저농산물 가격유지와 농업투자의 축소를 시
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출확장을 위해 수입증가
가 불가피하였고,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비가 국
제가격보다 높아 국제 경제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농산물 수입이라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월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에는 육류부족과 육가 상승으로 육류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축산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무(無) 축농가의 유(有)축화를 위해 농민에게 싼값의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협동축산 단지조성, 사료수급의 조정등 다양한 축산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1983년에는 암송아지 한마리가 100만원을 훗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1980

년에 158,000원에 거래되었음을 비교해 볼 때 소값이 엄청나게 뛰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소값의 급증은 78,753마리(1982: 49,452 마리, 1981년 : 17,709마리)의 소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급히 수입하게 하였고 쇠고기 수입도 '81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수입으로 인한 쇠고기 공급 확대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인한 쇠고기 소비감소와 함께 소값의 폭락을 농가

축산물의 농가판매 가격변동

	암송아지 (천원 / 두당)	큰 암 소 (천원 / 400kg)	돼 지 (천원 / 90kg)	닭 (kg)
1980	159	687	92	834
1981	342	1,061	150	969
1982	655	1,361	146	992
1983	1,000	1,664	128	868
1984	650	1,320	102	1,030
1985	355	972	131	961

자료 : 농수산부, [주요농정지표], 1986.

농가부채의 구조

(단위 : 천원)

	총 계	생산성부채	소비성부채	부채상환용	사채의 비중 (%)
1965	11	4	5	1	72.7
1970	16	8	7	1	62.5
1971	10	5	4	1	60.0
1972	14	8	5	1	64.3
1973	14	8	5	1	71.4
1974	26	14	10	2	76.9
1975	33	19	12	2	63.6
1976	37	24	11	2	56.8
1977	82	49	27	6	68.3
1978	111	79	27	5	50.5
1979	173	115	47	11	16.2
1980	339	206	112	21	49.0
1981	437	260	145	32	48.1
1982	830	509	263	58	33.2
1983	1,285	801	361	123	32.7
1984	1,784	1,140	455	189	31.3
1985	2,024	1,306	476	242	28.8

자료 : 농수산부, [주요농정지표], 1986.

표 1. 영양소별 섭취량의 연차적 추이(전국 1일 1인당)

연도	69년	70년	71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변동지수 85/84 × 100 (%)
열량 (Kcal)	2,105.0	2,209.77	2,050.56	2,054.0	1,992.37	1,926.0	2,134	1,833	2,097	2,052	2,040	1,991	2,012	1,901	1,935	101.79
단백질 (g)	65.6	69.57	66.51	68.0	63.56	60.4	71.0	59.5	69.6	67.2	69.9	67.4	69.6	69.3	74.5	107.50
지방 (g)	16.9	21.80	14.27	15.5	18.95	20.0	28.0	22.6	26.2	21.8	20.3	21.1	23.5	24.0	29.5	122.92
탄수화물 (g)	422.5	431.37	415.54	405.4	398.50	380.0	397	346	394.9	396.1	394.2	380.7	379.6	350.5	341.5	97.43
칼슘 (mg)	444.0	503.3	398.7	444.4	406.97	402	487	412	699	596	559	466	506	491	569	118.30
철 (mg)	24.8	12.04	13.28	14.1	12.37	12	14.2	10.3	12.4	13.5	15.8	13.3	15.1	13.9	15.6	112.23
비타민 A(I.U)	4,076.0	2,892.4	3,359.7	5,213.3	3,888.60	3,689	1,427	1,064	1,324	1,688	1,804	1,676	2,052	1,681	1,846	109.82
비타민 B ₁ (mg)	1.76	1.07	1.24	1.3	1.21	1.2	1.4	1.2	1.31	1.13	1.78	1.00	1.14	1.17	1.34	114.53
비타민 B ₂ (mg)	1.28	0.85	0.79	0.9	0.77	0.8	0.9	0.8	0.93	1.08	1.24	0.85	1.00	1.04	1.21	116.35
나이아신(mg)	27.8	16.72	14.88	15.0	15.34	16	19.0	16.1	21.3	19.1	20.1	20.7	23.7	22.7	25.7	113.22
비타민 C(mg)	89.0	75.56	78.92	100.6	78.89	75	91	68.1	98.2	87.9	67.2	76.0	69.5	58.6	64.7	110.41
동물성단백질비 (%)	11.59	21.58	12.74	17.94	20.64	20.2	24.3	28.7	31.9	28.7	32.2	32.6	33.5	37.8	41.7	110.32
곡류에너지비 (%)	84.1			82.1	82.5	82.3	77.7	78.0	77.4	77.4	75.5	77.9	74.9	73.6	67.9	98.02

$$\text{*동물성 단백질} = \frac{\text{동물성 단백질}}{\text{총 단백질}} \times 100$$

$$\text{*곡류 에너지비} = \frac{\text{곡류 에너지}}{\text{총 에너지}} \times 100$$

의 빛의 부담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같은 우리나라 정책의 간단한 예를 들어봄으로써 식량정책 수립에 있어 수요공급의 균형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일관성 있는 정책실시가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국내 가격보다 값이 싼 농수산물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농수산부는 식량자급 기반 및 농수산물 생산 농가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농수산물의 도입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실시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의 농산물 도입문제에 관한 의견차이는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섭취 실태조사

국민의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하여서 영양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영양섭취실태 조사가 1969년 이래 매년 보건사회부 주최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 34조 2항의 규정과 국민영양 개선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한국인의 식품섭취량, 건강상태 및 식생활 상태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식품군별 총섭취량, 영양소별 섭취량 및 이의 비율, 영양상태 취약대상 분포와 건강조사로서 지역별 체위평균치, 구각열 및 구각반흔 발현율등이 있으며, 식생활과 관련되는 항목으로는 조사대상 지역의 가구당 평균수입, 식생활비, 교육정도등이 있고, 부업의 설비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취사연료, 부업내부 상황파악 및 가옥의 평수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8도를 골고루 포함시켰으며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를 포함해서 약 1,000가구로 하였다.

영양소와 식품섭취의 연차적 추이는 다음(표 1, 2)와 같다. 70년대와 80년대의 영양소 섭취와 식품섭취 현황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한편 비타민

B₂와 나이아신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섭취 추이에서 나타나는데 곡류식품의 섭취량이 감소하고 육류, 난류, 어패류, 유지류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동물성식품급원에서 섭취되는 비타민 B₂와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곡류 자급자족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던 70년대의 식품수급 상황과는 달리 70년대 말과 80년대에 와서는 육류를 위시해서 난류, 우유등 동물성식품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에 도달하였다. 또한 야채나 과일류도 다양화되어서 식품공급측면에서 다양한 야채와 과일류의 공급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도록 정책을 장구하여야 한다.

식품수급표 작성

1962년부터 1976년까지는 우리나라 식품수급표를 농수산부와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197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한국 식품수급표를 농수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이 합동으로 제작하여 왔다.

최근 주요 식품 자급율을 연도별로 보면(표 3참조) 곡류, 콩류의 자급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곡류중에서 쌀은 '81년도에 66.2%였으나 '83년도에는 97% '85년에는 103%로 자급 달성하였다.

그러나 육류, 유지류, 두류, 곡류중에서 밀은 자급 달성율이 가장 떨어지는 식품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본다. 식품수급표에서 나타나는 자료가 식품수급 계획에 크게 반영되었기를 희망한다.

영양교육적인 측면

식품의 공급과 섭취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양하다고 지적되어 있다. 그중에서 대중의 영양교육 문제가 절실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사변 이후로 불안정한 사회속에서 안

(단위: g)

표 2. 식품군별 섭취량의 연차적 추이(전국 1일 1인)

연도 식품	연도											변동지수 85/84× 100(%)		
	69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식품성식품(계)	1,023.7	940.6	850.39	886.2	924.4	805.2	885.4	962.9	874.0	863.7	917.4	850.33	866.52	101.90
곡류	588.8	500.1	473.83	490.1	486.0	419.3	477.8	485.3	488.9	457.8	444.3	404.28	383.70	94.91
두류	24.9	27.1	31.13	28.6	40.5	28.4	34.8	46.9	49.9	46.6	61.8	59.55	74.21	124.62
감자	75.6	52.9	54.99	44.8	43.9	20.7	26.9	36.8	23.5	22.6	33.5	32.50	39.80	122.46
야채														
(1) 신선	190.6	190.0	164.01	169.8	190.3	149.7	215.9	165.8	132.7	144.8	146.9	141.22	147.87	104.71
(2) 가공	80.4	98.9	81.71	85.7	90.9	91.2	72.4	136.3	128.7	120.5	129.8	113.15	125.01	110.48
과실	48.1	27.7	22.35	43.1	47.6	97.3	27.8	41.3	31.9	42.1	68.5	68.28	64.08	93.85
해조	0.8	4.8	1.86	2.6	4.0	2.8	2.7	1.5	3.9	3.0	2.6	3.10	3.21	103.55
조미료, 주, 음료수	41.0	36.8	17.73	18.5	28.6	21.2	23.2	36.6	29.7	21.8	25.4	22.38	21.70	96.96
유지	*1	2.3	3.09	3.0	6.1	4.6	3.9	4.4	4.8	4.1	4.6	5.68	6.94	122.18
동물성식품(계)	31.7	59.2	71.85	62.8	85.2	83.5	118.5	97.6	97.5	116.0	124.7	140.59	183.04	130.19
육류	6.6	6.7	14.26	9.6	14.7	19.8	26.0	13.6	15.7	17.6	21.2	29.10	38.91	133.71
난류	4.2	1.6	5.06	5.5	6.0	9.9	12.8	8.3	7.4	8.3	11.3	13.26	20.62	155.51
어패														
(1) 신선	12.1	39.8	38.75	32.2	43.0	42.0	57.3	57.3	58.3	53.3	53.8	53.79	52.53	97.66
(2) 가공	6.1	9.3	9.00	8.8	13.8	6.3	11.9	8.4	7.1	22.8	23.3	24.17	28.14	116.43
유지	2.4	1.7	4.72	5.3	6.0	10.4	10.4	9.9	8.4	14.0	14.8	20.15	42.75	212.16
유지	*2	0.0	0.06	1.4	0.8	0.1	0.1	0.1	0.1	0.1	0.3	0.04	0.10	250.00
총계	1,055.4	999.8	922.15	949.1	1,014.6	889.7	1,003.9	1,060.5	971.5	979.7	1,042.1	990.93	1,049.57	105.92
식품성식품(%)	97.0	94.08	92.22	93.37	92.0	90.1	88.2	90.8	90.0	88.2	88.0	85.8	82.6	96.27
동물성식품(%)	3.0	5.92	7.78	6.63	8.0	9.9	11.8	9.2	10.0	11.8	12.0	14.2	17.4	122.54

표 3. 주요식품 자급율 추이

식 품 군	1977	1979	1981	1983	1985
1. 곡 류	67	58.7	41.9	50.3	49
(쌀)	105	85.8	66.2	97.7	103
(보 리)	47	117.0	82.3	119.9	
(밀)	23	2.4	2.7	5.8	
(옥 수 수)	-	-	6.1	2.7	
2. 감 자 류	100	99.9	100	100.0	109
3. 콩 류	71	47.3	34.9	31.1	25
4. 종 실 류	98	83.9	77.8	85.7	106
5. 채 소 류	102	100.2	100.4	100.5	98
6. 과 실 류	101	97.7	100.8	100.5	94
7. 육 류	100	94.3	94.7	92.1	100
(쇠 고 기)	95	75.4	74.2	57.4	
(돼 지 고 기)	104	98.7	99.5	100.0	
(닭 고 기)	100	100	100	100.0	
8. 계란 유	100	99.9	100	100.0	100
9. 우 유 류	102	101.9	91.9	97.7	101
10. 어 패 류	126	137.9	129.3	120.8	138
11. 해 조 류	147	180.0	148.5	141.2	159
12. 유 지 류	34	51.2	45.9	44.5	
		(17.9)	(13.7)	(10.4) ^b	(16)

*1) ()안은 수입원료에 의한 유지생산량을 국내생산량으로 부터 제외한 자급율임.
 자료 : 각년도 식품수급표, 농수산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을 찾고 경제성장을 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문제를 사회 전반에서 다루어 왔지만 그중에서 영양교육문제는 비교적 미온적으로 다루어 온 분야라고 본다.

1)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1953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은 초기에는 구호급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식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미국에서 원조받아온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콩으로 우유를 만들어서 급식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 메뉴는 주로 빵 급식으로 서구 식사의 모방에 주력하였으나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구호급식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유료급식으로 국민식성을 개선

해 가면서 영양적으로 균형된 식사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에는 영양교육 측면이 강조되면서 단체급식 시설 및 경영의 합리화까지 이루어지는 급식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2) 응용영양사업을 통한 영양교육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과에서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개선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68년 3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UNICEF, FAO, WHO의 지원을 받아 응용영양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응용영양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전국 1,000여부락에 영양개선의 집을 설립하고 간단한 영양지식과 식품조리법, 가공법을 교육

하였고 농가 식단의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응용영양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식품섭취 구조의 변화, 다양한 식품의 생산, 영양결핍 증세의 감소 및 아동 체위 향상을 들고 있다.

3) UNICEF를 통한 영양교육

Primary Health Care의 입장에서 영양교육이 행해졌다. 194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BCG접종을 시작해서 결핵퇴치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76년 사이에 보건 서비스가 확대되고 BCG, DPT 접종약의 생산을 위한 장비도 제공하였다. 응용영양사업으로 영양교육과 관련된 지도자 훈련을 강화하며, 영양식품의 생산 및 가정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1977-1986년 사이에는 영양사업에 쓰이는 장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4) 보건소를 통한 영양교육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양상담을 통한 어린이 양육, 임산부의 섭생등을 실시하고 있다.

5)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영양교육

초등학교 자연교육과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에서 생활교육을 통한 영양교육이 행해졌으며 2년제, 4년제 대학교육을 통해서 영양사 및 영양 전문요원을 배출하였다.

REFERENCES

- 1) 정혜경, 김영옥, 방 숙. 한국 농촌주민의 영양상태 수준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문헌 고찰. 식품과 영양 15(4): 10-16, 1984
- 2) 오봉국, 이지현. 수입 축산물이 축산 진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대 논문집 5(1): 195-212
- 3) Paul Ensor. *Diary boom runs dr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5(July): 48-49, 1985
- 4) 김성훈. 쌀의 정치경제론. 사인사, 1984
- 5) 반성환. 식량문제와 농업생산성. 경제연구 3(2): 279-305
- 6) 농촌진흥청. 한국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정, 1979
- 7) 전승규. 한국 응용영양사업의 진로. 식품과 영양 1: 9-14, 1980